



눈꽃속에 핀 산수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이틀 앞둔 3일 화순군 이십곡리 너릿재 소공원에서 춘설과 어우러져 꽃을 피운 산수유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온다는 韓電 등 17개 공공기관

아직껏 땅 한평도 안샀다

2012년 혁신도시 완료 큰 차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의 중추 기관인 한국전력이 이전 부지 매입을 1년여 동안 끝내지 못한 채 사실상 공공기관 이전 부지매각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조성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3월 31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상반기 혁신도시 내 이전 신축 부지(14만 9천372㎡·4천억원)를 매입할 예정이 있으나, 현재까지도 부지 매입 계약을 미루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적자와 조직 개편 등 회사 경영 사정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영 상태를 빌미로 분사 이전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 한전은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상대로 이전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문제는 한전이 올 하반기에도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이전 완료시기인 2012년까지 분사를 완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내년 상반기 국제현상 공모를 통해 청사 설계자를 선정한 뒤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시기를 빨라야 2011년 7월로 보고 있다.

이처럼 한전이 이전부지 매입 계약을 미루는 데 따라 나머지 16개 기관 가운데 단 한 곳도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사실상 부지매각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한전 이전 차질은 광주시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혁신도시 부지개발 공동사업자인 광주시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각각 1천500억원, 1천억원을 투입해 사업에 투자했으나 지난해 무

려 170억원의 이자 비용을 부담했다. 이전 대상기관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탓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의 기폭제가 될 한전이 이전에 미온적이어서 사실상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며 "한전이 하루빨리 이전을 서둘렀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내 옛 도청 별관 철거논란으로 지연됐던 전당 건물 공사가 옛 전남도의회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 재개된다. 이병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하 추진단)과 정수만 5·18 유족회장, 신경진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은 3일 광주시 서구 한 음식점에서 첫 공식 만남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조만간 도의회 건물 철거를 위해 장비·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지난해 12월 중단된



문화수도 빛낸 민간 문화외교

광주 '모나무르 오케스트라' 뒤뷔송 주한 벨기에 대사와 다음달 창단연주회 때 협연

'클래식 선율과 함께 하는 민간 문화 외교'. 현지 벨기에 대사가 광주의 음악인들과 멋진 화음을 선사한다.

피에르 클레망 뒤뷔송(60·사진) 주한 벨기에 대사가 오는 4월 9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모나무르 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무대에 선다. 뒤뷔송 대사는 이날 바순 연주자로 참여, 앙드레 클레브(바이올린), 디디에 포스경(첼로), 카마르 티에리(오보에) 등 벨기에 연주자들과 하이든의 '콘체르탄토'를 협연한다.

30년 넘게 플루트를 연주해온 뒤뷔송 대사는 이어 10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연주회에는 플루트 주자로 참여한다. 광주 출신 피아니스트 조현영, 앙드레 클레브 등과 함께 라이카의 '피아노 4중주곡'을 들려 줄 예정이다.

이번 연주회는 시립이나 관립 단체가 아닌, 순수 민간 음악단체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독주 무대가 아니라 60여명의 지역 음악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협연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뒤뷔송 대사는 3~4일 동안 광주에 머물며 전남대 관현악실에서 단원들과 연습을 할 예정이다.

벨기에 대사의 참여는 모나무르 오케스트라의 전신인 모나무르실내악단 시절부터 관계를 맺어온 바이올리니스트 이형석 전남대학교수와 벨기에 연주자들의 오랜 인연에서 시작됐다.

오케스트라 창단 음악회에 참여하기로 한 클레브가 벨기에에서 여러차례 함께 무대에 섰던 뒤뷔송 대사가 마침 한국대사로 부임한 사실을 알고 협연 무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 교수는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친구들 덕분에 벨기에 대사까지 참여하는 멋진 무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대사를 비롯해, 벨기에 유명 연주인들이 참여하는 연주회를 통해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뒤뷔송 대사는 지난 1월 광주를 방문, 이 교수와 함께 5·18 국립묘역과 의제미술관 등을 방문했으며 공연장인 광주문화예술회관 시설을 둘러보기도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도청별관 문제 조기 매듭 합의

추진단·5월단체 첫 만남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내 옛 도청 별관 철거논란으로 지연됐던 전당 건물 공사가 옛 전남도의회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 재개된다. 이병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하 추진단)과 정수만 5·18 유족회장, 신경진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은 3일 광주시 서구 한 음식점에서 첫 공식 만남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조만간 도의회 건물 철거를 위해 장비·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지난해 12월 중단된 전당 건립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날 추진단과 5월 단체는 '옛 도청 별관 원형 보존-철거'라는 양측의 입장을 존중하되,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5월 단체의 별관 철거반대 농성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이 3월 중순께 별관 철거방지를 고수하고 있어 문화전당 공사가 다시 중단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병훈 추진단장은 "5월 단체와 별관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다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제가 목표지점장, 광주지방검찰청 치장 검사등을 역임하고 광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일하는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조선대학교 교수직을 마치고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게 되어 인사드립니다.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민수 올림

- 개업장소 : 광주시 동구 지산동 724-20 (변호사회관 5층)
- 대표전화 : (062) 224 - 0004
- 팩 스 : (062) 224 - 0005

조이 여행사

234-3222

상해 향주 소주4일 (M/J)	295,000
북경 3박4일 (CZ)	388,000
북경 4박5일 (CZ)	419,000

제주 2박3일 배리지여행

88,000

항공항공 188,000
선박+항공 138,000

카멜리아 3박 4일

부산출도착

수송산동선 4박 5일	179,000
문경3박4일	279,000
북경 4박 5일	389,000